

단군신화 속 홍익인간의 유래와 그 의미

조경철

나라이름역사연구소 소장, 한국사 전공
naraname2014@naver.com

I. 머리말

II. 단군신화의 인(人)과 인간(人間)

III. 홍익인간의 유래

IV. 홍익인간의 의미

I. 머리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태백산에 내려와 사람이 된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고 그 단군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는 단군신화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13세기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실렸다. 특히 홍익인간은 단군이 세운 조선이란 나라의 건국이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이념이 될 정도로 그 의미는 남달랐다.

보통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번역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 등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어느 것이 가장 맞는 해석일까.

‘홍익인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이유는 ‘인간’이란 용어가 때에 따라 ‘인간’, ‘사람’, ‘인간세상’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전근대에는 ‘인간’과 ‘인’이란 단어가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근대 이후 ‘인간’과 ‘인’이 모두 ‘사람’으로 번역되면서 위와 같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근대 이후 홍익인간의 ‘인간’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인간세상’이 아닌 ‘사람’으로 오해하게 된 이유는 서구의 진화론적이고 인본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이 채택되었을 때도 이 관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¹⁾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홍익인간의 인간은 ‘인간세상’보다는 ‘사람’에 가깝다고 하면서 홍익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인본주의를 강조하였다.²⁾

물론 ‘인간’을 ‘사람’으로 해석하더라도, ‘인간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이므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세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을 떠올리는 것과 ‘인간’을 단지 ‘사람’으로 단정하여 떠올리는 것 사이에는 ‘홍익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홍익인간’의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1차적으로 13세기 일연의

1) 김인희, 「21세기 교육이념과 홍익인간 교육이념」, 『정신문화연구』 74호(1999), 48쪽.

2) 정영훈,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조선단군학』 34(2016a); 정영훈, 「홍익인간 사상의 인본주의」, 『민족문화논총』 64(2016b). 정영훈은 홍익인간의 인간을 1. 인간세상, 2. 사람, 3. 백성(피치자), 4. 남과 이웃의 네 가지로 해석하였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홍익인간’의 ‘인간’의 의미를 해결해야 한다. ‘홍익인간’은 고려 초나 그 이전으로 추정되는 『고기』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고기』의 성립연대인 고려 초나 삼국시대의 ‘인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13세기 조선 초 ‘인간’에 대한 이해도 거쳐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단군신화를 실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인간’과 ‘인’의 용례를 검토하고 범위를 넓혀 『삼국유사』 전편에 나오는 ‘인간’의 용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보다 앞서 편찬된 『삼국사기』의 ‘인간’의 용례를 검토하고 신라 말, 고려 초 선사들이 남긴 비문에 보이는 ‘인간’의 용례와 조선 초기 실록에 나오는 ‘인간’의 용례를 검토해볼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뜻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 사이’가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무한히 많은 사람과 무한히 많은 사이가 되므로 ‘인간세상’으로 풀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인간세상’과 ‘사람’이라는 해석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이 글에서는 ‘인간’과 ‘인’의 사상적 차이점을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익인간’의 연원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까지 ‘홍익인간’이란 용례는 단군신화에 보이는 ‘홍익인간’이 유일하다. ‘홍익’과 ‘인간’은 특정 사상을 반영하는 용어가 아니고 두루 사용할 수 용어이다. 이 글에서는 ‘홍익인간’의 연원을 불교의 ‘홍익중생(弘益衆生)’과 연관시켜보고자 한다. 불교에 나오는 홍익(弘益), 자익(自益), 요익(饒益), 이익(利益) 등의 용례와 이들과 조합되는 중생과 인간의 용례를 검토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에서 밝혀진 ‘인간’의 의미와 ‘홍익인간’의 의미를 바탕으로 21세기 ‘홍익인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단군신화의 인(人)과 인간(人間)

단군신화의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인간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개별적인 인간(사람)일까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인간세상’일까? 다음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인용된 단군신화이고, 여기에 나오는 인, 인간, 인세 등의

용례를 요약해보았다.³⁾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제석을 말함의 서자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세(人世)를 탐하여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人間)을 이롭게 할 만하여, 이에 아들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 (그곳에)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 「태백은 곧 지금의 묘향산이다」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이곳을 신사라 이르고 이분을 환웅천왕으로 불렀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맡아서 관장하고, 인간(人間)에 관한 360여 가지 일을 관장하면서 세상에 머물러 다스리며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고 있었는데, 늘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변하여 사람이 되게(爲人) 해달라고 빌었다. 이때에 신이 영험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양(人形)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고 금기한 지 21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금기하지 못해서 사람의 몸(人身)이 되지 못하였다. 여자가 된 곰은 더불어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매번 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이에 잠시 변하여(假化) 그와 혼인하였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朝鮮)이라고 불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궐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부르니 이곳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삼국유사』 고조선)⁴⁾

3) 김인회도 단군신화의 ‘인’과 ‘인간’을 간단히 검토한 적이 있다. 김인회는 앞에서 인용한 논문(1999, 43쪽)에서 “단군신화 속에는 天下, 人世, 人間, 世 등의 여러 이름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불렀다. 그중 ‘인간’은 두 번 등장한다(특별히 ‘사람’을 지칭할 때는 人 또는 人身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홍익인간을 ‘사람 사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하였다.

4) 『삼국유사』 고조선조. “魏書云 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經云無葉山 亦云白岳 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開國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 今妙香山」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生理化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 雄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身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堯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都平壤城「今西京」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今海州」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謂玄菟樂浪帶方「北帶方」通典亦同此說「漢書則眞臨樂玄四郡 今云三郡 名又不同 何耶」.”

※ 인(人,) 인간(人間), 인세(人世)의 용례

(가) 인

- ①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 願化爲人
- ② 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 ③ 虎不能忌 而不得人

(나) 인간

- ①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 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다) 인세

- ①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단군신화에 나오는 인은 크게 인과 인간으로 구분된다. 곰과 범이 사람이 되겠다고 한 ‘爲人’, 사람의 모양이 될 것이라는 ‘人形’, 범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不得人’ 등의 용례에서 보이는 인은 인간세상이 아닌 개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홍익인간의 인간은 인이라 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했으므로 개별적인 인간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란 뜻의 ‘인간세상’의 의미로 풀수 있다.

탐구인세(貪求人世)의 ‘人世’는 무슨 뜻일까? 단어 구조상 ‘인간세(人間世)’ 또는 ‘人間世上’ 또는 ‘人間世界’의 줄임말로 보인다. 불교에서는 6도 가운데 하나인 人世⁵⁾(인간세계)로 보기도 한다. 인세는 용례에 따라 人間世⁶⁾ 또는 人間世上⁷⁾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탐구인세’는 ‘인간세상을 구하길 탐했다’로 번역할 수 있겠다. 인세의 중심은 세(世)에 있고 그 세는 인간세상이 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인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① 환인은 서자 환웅은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구하기를 바랐는데(貪求人世), 아버지가 아들을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삼국유사』 고조선조)
- ② 새벽이 돼서 보니 머리칼이 하얗게 세어 있었다. 낮을 잃은 듯 더 이상 인간세상에

5) 『大寶積經』卷3. “不墮於三惡 生處於人世.”(CBETA, T11, no. 310, p. 16, b27-28).
6) 『出曜經』卷2. 〈1 無常品〉“今世衆生轉微轉薄遂成減損. 於人間世不見熾盛.”(CBETA, T04, no. 212, p. 618, a9-10).
7) 『金剛經註解』卷2. “於人間世上有許多交涉.”(CBETA, X24, no. 468, p. 776, a12 // Z 1:38, p. 441, b2 // R38, p. 881, b2).

뜻이 없었다(無人世義). 삶의 괴로움에 이미 염증이 난 것이 마치 백 년의 쓰라림을 겪고 난 것 같았다.(『삼국유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⁸⁾

③ 어찌 반드시 조신 스님의 꿈만 그렇겠는가? 지금 모두 인간세상이 즐거움
줄만 알고(今皆知其人世之爲樂) 기뻐 날뛰며 애쓰고 있으니 오로지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삼국유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⁹⁾

④ 이 두 스님은 오랫동안 바위 덩굴에 숨어 살며 인간세상과 교류하지 않았다.¹⁰⁾

『삼국유사』에는 총 네 번의 ‘人世’ 용례가 보인다. ‘고조선’조의 환웅이 인간세상을 탐한다는 ‘貪求人世’, 조신의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無人世義(인간세상에 뜻이 없어)’와 ‘今皆知其人世之爲樂(지금 모두 인간세상의 즐거움만 알고)’, 두 스님의 은둔생활을 다룬 ‘포산이성’조의 ‘不交人世(인간세상과 교류하지 않았다)’가 그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인세(人世)’ 모두 ‘인간세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人間三百六十餘事の ‘人間’이다. 보통 ‘홍익인간’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다’라고 번역하면서 ‘주인간삼백육십여사’는 일반적으로 ‘인간(사람)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을 인간세상이 아닌 개별적인 인간(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세상의 뜻이라면 ‘주인간삼백육십여사’도 ‘인간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다’로 해석해야 한다.

단군신화의 인세나 인간을 모두 인간세상으로 풀어보았다. 인간세상에 인간만 존재한다면 ‘인간’을 번역할 때 ‘사람’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인간세상에 인간 이외의 존재도 포함된다면 ‘사람’으로 번역하면 모든 걸 담아내지 못한다.¹¹⁾

8) 『삼국유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及旦鬢髮盡白 惘惘然殊無人世意 已壓勞生如飫百年辛苦.”

9) 『삼국유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何必信師之夢爲然 今皆知其人世之爲樂 欣欣然役役然 特未覺.”

10) 『삼국유사』, 포산이성. “此二師久隱巖叢 不交人世.”

11) 정영훈은 홍익인간의 인간을 인간세상보다는 인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군신화에는 ‘인간세상’에 가까운 ‘人世’라는 용어가 따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 ‘홍익인간’의 ‘인간’이 ‘인간세상’이라는 의미였다면, 번역자는 ‘홍익인간’ 대신에 ‘홍익인세’라는 번역어를 골랐을 것이다. 이 대목은 ‘홍익인간’의 ‘인간’을 ‘사람’으로 해석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정영훈, 앞의 논문, 2016b, 127쪽). 인간세상보다는 인간에 중점을 둔 견해가 필자의 전체적인 견해와 어긋나지 않는다. 인간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다. 인간세상이라고 하지만 항상 그 중심은 인간에 있다. 필자가 문제 삼는 것은 고려시대와 그 이전 사람들이 인식한 ‘인간’이란 字意에 대한 이해가 ‘인간세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 단군신화에 나오는 인과 인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인과 인간의 용례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게 순서인 것 같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인의 용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물론 대부분 사람이라는 뜻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인간'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① 환인은 서자 환웅은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구하기를 바랐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弘益人間). (『삼국유사』 고조선조)
- ②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맡아서 관장하고, 인간세상에 관한 360여 가지 일을 관장하면서(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세상에 머물러 다스리며 교화하였다. (『삼국유사』 고조선조)
- ③ 왕이 또 물었다. 귀신의 무리 중에 인간세상에 나와(出現人間) 조정을 보좌할 만한 자가 있는가?¹²⁾
- ④ 공이 부인에게 바다속 일을 물었다. 칠보 궁전에 음식은 달고 부드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세상에서 불에 익힌 음식이 아니었습니다(非人間煙火).¹³⁾
- ⑤ 의상이 도선율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스님은 이미 천제의 존경을 받고 계시니 제석궁에 부처님의 40개 치아 가운데 한 개의 어금니가 있다고 하니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세상에 내려보내 주기를 청하여(請下人間) 복을 삼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¹⁴⁾
- ⑥ 도리천의 하루 밤낮은 인간세상의 백년과 같다(唐人間一百歲).¹⁵⁾
- ⑦ 맹세하여 말했다. 내가 만약 병화에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면 두 보주는 끝내 인간세상에 나타나지 않아(不見於人間)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두 보주를 나라에 바칠 것이다.¹⁶⁾
- ⑧ (명부의) 관리가 물었다. 너는 인간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汝在人間作何業)? 선율이 대답했다. 빈도는 말년에 『대품경』을 만들려다 다 만들지 못하고 왔습니다.¹⁷⁾
- ⑨ 관리가 물었다. 너의 수명은 다 되었지만 좋은 발원을 아직 끝내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세상으로 가서 보전(대품경)을 이루라(司曰. 汝之壽錄雖盡. 勝願未

12)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랑. “王又問 鬼衆之中 有出現人間 輔朝政者乎.”

13) 『삼국유사』, 수로부인. “公問夫人海中事. 曰, 七寶宮殿. 所饌甘滑香潔. 非人間煙火.”

14) 『삼국유사』, 전후소장사리. “湘公從容謂宣曰 師既被天帝所敬 嘗聞帝釋宮有佛四十齒之一牙 爲我等輩請下人間 爲福如何.”

15) 『삼국유사』, 전후소장사리. “初利天一日夜 當人間一百歲.”

16) 『삼국유사』, 낙산시대성 관음 정취 조신. “誓曰 我若不免死於兵 則二寶珠終不現人間 人無知者 我若不死 當奉二寶獻於邦家矣.”

17) 『삼국유사』, 선율환생. “司問曰. 汝在人間作何業. 律曰. 貧道暮年欲成大品經. 功未就而來.”

終. 宜復人間畢成寶典).¹⁸⁾

『삼국유사』에 나오는 ‘인간’의 사례는 ‘고조선’조의 弘益人間과 人間三百六十餘事를 포함하여 귀신과 인간의 사랑을 다룬 ‘도화녀비형랑조’의 出現人間, 수로부인이 용에게 잡혀간 일을 다룬 ‘수로부인조’의 人間煙火, 부처님 사리가 보존되어 내려온 내력을 적은 ‘전후소장사리조’의 請下人間과 當人間一百歲, 신기한 보배 구슬의 이야기를 적은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不現於人間, 저승세계에서 다시 인간세상으로 되돌아 온 선율의 이야기인 ‘선율환생’조의 在人間과 復人間 등 총 9건이다.

모두 사람이 아니라 인간세상의 의미로 이해된다.¹⁹⁾ 위 용례 가운데 ⑦ 두 보주는 끝내 인간세상에 나타나지 않아 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특히 주목된다. ‘不現於人間’이란 문장에 ‘人無知者’가 이어져 보인다. 한 문장에 人間과 人이 대비되어 있다. 앞의 ‘인간’은 인간세상의 의미이고 뒤의 ‘인’은 사람이란 뜻이다.²⁰⁾

『삼국유사』보다 앞서 편찬된 『삼국사기』에 나오는 인²¹⁾과 인간의 용례는 우리의 논의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삼국사기』 열전 강수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가 들으니 불교는 세속을 도외시한 가르침인데, 저(愚)는 인간세상의 사람으로서 어찌 부처가 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유교의 도를 배우고 싶습니다.”(『삼국사기』)²²⁾

아버지가 강수에게 불교를 배우겠느냐? 유교를 배우겠느냐?라고 묻자 유교를 배우고 싶다는 답변이다. 위 답변 내용 가운데 ‘인간세상의 사람’에 해당되는 원문은 ‘人間人’이다. 人間과 人을 구분하고 있다. 물론 『삼국사기』의 다른 용례에 ‘인간’이 보이고 일반적인 해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18) 『삼국유사』, 선율환생. “汝之壽錄雖盡. 勝願未終. 宜復人間畢成寶典.”

19) 현 『삼국유사』 번역본에는 ‘人間’을 사람이나 인간으로 잘못 번역한 사례가 많다.

20) 『大方廣佛華嚴經』 卷78 (39 入法界品). “善男子! 譬如有人. 得安繕那藥以塗其目. 雖行人間. 人所不見. 菩薩摩訶薩亦復如是. 得菩提心安繕那藥. 能以方便入魔境界. 一切衆魔所不能見.”(CBETA, T10, no. 279, p. 433, b19-22) 이처럼 人間과 人이 대비되어 나오는 구절은 불경의 『화엄경』에도 등장한다. 밑줄 친 부분은 ‘사람에 비유하자면 안약의 일종인 安繕那藥을 눈에 바르면 인간세상에 다녀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듯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도 ‘人間’은 인간세상, ‘人’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쓰였다.

21) 『삼국사기』에 나오는 ‘인’의 용례는 천 번을 훨씬 뛰어넘는다. 즉, 사람을 표현할 때는 인간보다는 인이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삼국사기』 열전, 강수전. “愚聞之. 佛世外教也. 愚人間人. 安用學佛爲? 願學儒者之道.”

있지만 ‘인간세상’으로 해석하는 게 원뜻에 가깝다고 생각된다.²³⁾ 강수의 말에서 인간과 인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전근대의 인간은 사람이 아닌 인간세상으로 풀어야 한다. 강수는 특히 불교보다 유교를 앞세우는 사람이므로 유교에서도 인간과 인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신라 말 고려 초 선사들의 비문에 남겨진 ‘인간’이란 용례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세상도 한적하고(人間蕭條) 선방이 적막하고²⁴⁾
- ② 인간세상을 커다란 꿈이라고 여기고(人間若大夢)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부처처럼 하면서²⁵⁾
- ③ 갑자기 인간세상을 떠나(棄人間)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렸다.²⁶⁾
- ④ 이때 하늘색이 창망해지고 햇빛이 참담하였으며, 인간세상은 눈을 잃었고(人間失眼) 온 세상이 마음 아파하였으니²⁷⁾
- ⑤-1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 인간세상이 우러러보는 바(人間之瞻仰)가 되며, 부처는 천축에서 태어나 세상의 귀의하는 바가 되어 [...] ⑤-2 행실은 구름 밖에 드높고 복은 인간세상을 흠뻑 적시었다(福潤人間).²⁸⁾

23) 『삼국사기』에는 인간의 용례가 총 두 번 보이는데 강수전의 ‘人間人’과 『삼국사기』樂志에 인용된 최치원의 5개 시 가운데 束毒이 있고 그 구절 중에 ‘蓮頭藍面異人間’이 보인다. 5개 시 가운데 하나인 大面이란 시에 ‘黃金面色是其人’이란 구절도 있다. 한중연 『역주삼국사기』는 각각 ‘쑥대머리 남빛 얼굴이 사람 같지 않은데’, ‘황금색 얼굴색이 바로 그 사람인데’라고 되어 있다. 최치원의 두 시를 비교해보면 최치원은 ‘人’과 ‘人間’을 모두 ‘사람’이란 의미로 썼다고 볼 수 있지만, 시의 특성상 ‘인간세상의 인간(人間人)’을 ‘人間’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럼 ‘蓮頭藍面異人間’의 해석은 ‘쑥대머리 남빛 얼굴이 인간(세상의 사람) 같지 않은데’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인간세상의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이란 뜻이다.

24) 「사림사(선원사지) 홍각선사비」. “人間蕭條 禪室寂寞 사람도 한적하고 선방이 적막하고.”(남동신 역) 한국고대사연구소 편, 『역주한국고대금석문 3』(가락국사적연구원, 1995).

25) 「월광사 월랑선사탑비」. “喻人間若大夢 齊衆生猶如來 인간세계를 커다란 꿈이라고 여기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부처처럼 하면서.”(최연식 역) 『역주한국고대금석문 3』.

26) 「옥룡사 통진대사 보운탑비」. “棄人間 已歸天上 갑자기 인간세계를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렸다.”(심재석 역) 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주 여말선초금석문(상하)』(혜안, 1996).

27) 「홍녕사 징효대사 보인탑비」. “于時 天色蒼茫 日光慘憺 人間失眼 世路傷情 이 때 하늘색이 창망해지고 햇빛이 참담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시력을 잃은 듯하였고 온 세상이 마음 아파하였으니.”(남동신 역) 위의 책.

28) 「고달원 원종대사 해진탑비」. “日出扶桑 作人間之瞻仰 佛生天竺 爲世上之歸依 [...] 行高雲外 福潤人間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 인간이 우러러보는 바가 되며, 부처는 천축에서 태어나 세상의 귀의하는 바가 되어 [...] 행실은 구름 밖에 드높고 복은 인간세상을 흠뻑 적시었다”(남동신 역) 위의 책.

- ⑥ 청진데 인간세계(在人間)에 나타나시어(請見在人間) 삼천계를 환히 비취²⁹⁾
- ⑦ 세상길을 보고서 괴로워하였고, 인간세상을 돌아보며(顧人間) 유감스럽게 여겼다.³⁰⁾
- ⑧ 우리 대사는 인간세상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며(人間慈父), 세상을 이끄는 스승이니³¹⁾

위에 제시한 8개 항목의 9개 사례에 나오는 ‘인간’은 모두 인간세상이란 뜻이다. 그런데 기존 비문의 해석자들은 ‘인간’을 ‘인간세상’, ‘인간세계’, ‘인간’, ‘사람’, ‘사람들’ 등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인간’과 ‘인’을 구분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번역자이면 원문의 ‘인간’을 ①에서는 ‘사람’, ④에서는 ‘사람들’, ⑤에서는 ‘인간’과 ‘인간세상’ 등 모두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물론 해석상의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번역문만 보고 원문이 ‘인’인지 ‘인간’인지 ‘인간세상’인지 ‘인간세계’인지 알 수가 없다.³²⁾

결론적으로 단군신화의 ‘인’은 사람, ‘인간’은 인간세상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³³⁾ 다음 인간세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는 꿈, 범³⁴⁾이 찾아온 것으로 보아 인간을 포함한 그 이외의 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는 장을 달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9)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비」, “請見在人間 炤透三千界 청진데 인간세계에 나타나시어 삼천계를 환히 비취주시시오”(박영제 역) 위의 책.

30) 「보리사 대경대사 현기탑비」, “窺世路而含酸 顧人間而飲恨 세상 살아가는 길을 보고서 괴로워하였고, 인간을 돌아보며 유감스럽게 여겼다”(윤영호 역) 위의 책.

31) 「무위사 선각대사 편광탑비」, “吾師 人間慈父 世上導師 우리 대사는 인간세상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며, 세상을 이끄는 스승이니”(김인호 역) 위의 책.

32) 유가 경전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등 4서 5경을 검색해보면 ‘人間’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모두 ‘人’으로만 나온다. ‘인간’은 유교의 용어라기보다 불가의 용어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33) 김민수 등 편, 「열이란 말에 대하여」, 『국어와 민족문화』, 집문당(1984), 186쪽에서 양주동은 ‘인간’이란 말은 ‘사람’의 뜻으로 그릇 변용되나, 본래는 세상의 뜻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권성아, 「홍익인간 이념의 교육학적 해석」, 『정신문화연구』 22권 1호, 1999, 75쪽 각주 15에서 재인용). 물론 전근대의 ‘인간’이 ‘인간세상’ 또는 ‘세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를 해명하고 ‘인간’과 ‘인’의 차이점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34) 단군신화의 꿈범은 신석기시대 꿈을 토렘으로 하는 부족과 범을 토렘으로 하는 부족의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신화 속의 꿈범은 축생이 사람이 되어 인간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홍익인간의 유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처음 나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용어의 출발을 승려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13세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홍익인간을 포함한 단군신화가 '고기'를 인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10세기를 전후한 고려 초나 삼국시대의 용례일 수도 있다.³⁵⁾

『삼국유사』와 『제왕운기』³⁶⁾를 제외한 '홍익인간'의 용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 단종 즉위년 임신년(1452) 6월 28일 경창부윤 이선제가 황해도 지역에 창궐하는 전염병에 대한 상소문을 올리는 내용 가운데 보이는 홍익인간도 『삼국유사』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다.³⁷⁾ 이후 20세기를 전후하여 홍익인간이란 용어가 관련 문헌에 보인다.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과 『제왕운기』를 지은 이승휴는 서로의 책을 참조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용례가 드문 '홍익인간'을 동시에 인용한 걸 보면 이 '홍익인간'이란 용례가 일연이나 이승휴 당대인 13세기에 생겨난 말이 아니라 고려 초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말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단군신화의 홍익인간이란 말은 단군신화를 서술할 때 새로 조합하여 만든 신용어로 보아야 한다.

홍익인간은 백낙준, 안호상, 정인보 등에 의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이 되기도 했다.³⁸⁾ 백낙준은 홍익인간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인간'이란 의미로 풀고 있다.³⁹⁾ 여기서 인간은 인간세상보다는 개별적인 사람이란 의미의 인간이다. 그는 홍익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보

35) 석재환인을 환인으로 잘못 끊어 읽은 점을 고려하면 고구려의 평양친도를 전후한 5세기의 용어로도 볼 수 있다. 조경철, 「단군신화의 불교적 세계관」, 정구복 외, 『삼국유사 기이편연구』(경인문화사, 2005).

36) 『제왕운기』. “本紀曰 上帝桓因有庶子 日雄云云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

37) 『조선왕조실록』, 단종 즉위년 6월 28일. “臣先齊, 夷考《三國遺史》, 有曰: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數意於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 실록의 번역본에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弘益人間) 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번역의 ‘인간’은 ‘사람’의 뜻으로 해석한 듯하므로 ‘인간세상’으로 표현하는 게 원뜻에 가깝다.

38) 정영훈, 앞의 논문(2016a).

39) 백낙준, 「사회변혁과 새교육」, 『한국의 현실과 이상(상)』(동아출판사, 1963), 93-96쪽.

다 교육적 사회적 의미에 치중했다.

홍익인간의 연원에 대해서는 주로 불교적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왔다. 민영규는 『속고승전』의 승옹(僧邕)전에 나오는 ‘널리 이롭게 하는 방안(弘益之方)’⁴⁰⁾의 홍익을 홍익인간의 홍익의 뜻으로 보았다.⁴¹⁾ 이에 대해 조홍윤은 민영규가 인용한 승옹전의 ‘홀로 그 몸을 선하게 한다(獨善其身)’라는 말이 실은 『맹자』에서 인용한 것으로, 승옹전의 홍익지방은 ‘궁하면 홀로 그 몸을 선하게 하고 영달하면 겸하여 천하를 선하게 한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라는 구절의 겸선(兼善)을 홍익(弘益)으로 바꾼 것이라 하였다. 또한 홍익인간의 익(益)은 『유마경』의 ‘중생을 요익케 한다(饒益衆生)’는 구절의 요익(饒益)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⁴²⁾ 이들은 이런 홍익의 개념에 인간을 붙여 쓰고 있다고 하였다.

홍익인간의 홍익의 사전적인 의미는 ‘널리 이롭게 하다’이다. 홍은 ‘널리’ 혹은 ‘크게’란 부사로 익은 ‘이롭게 하다’란 동사다.⁴³⁾ 물론 홍(弘)은 부사로 해석하지만 ‘넓히다’는 동사로도 쓰이므로 홍익을 (인간세상을) 넓히고 이롭게 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인(弘人)또는 홍익어도(弘益於道)란 용례가 있다. 인능홍도 비도홍인(人能弘道 非道弘人)은 『논어』에 나오는 말로, 곧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곡 정제두는 이 의미를 도를 넓히고 이익되게 하는 것은(弘益於道) 그 학문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고 풀었다.⁴⁴⁾

40) 『續高僧傳』 卷19. “修道立行. 宜以濟度爲先. 獨善其身非所聞也. 宜盡弘益之方 照示流俗.”(CBETA, T50, no. 2060, p. 584, a10-12).

41) 민영규, 「용제선생과 홍익인간의 문제」, 『용제백낙준박사기념강연』(대한기독교서회, 1992); 민영규, 「사천강단제 2」, 『사천강단』(민족사, 1997). 『사천강단』에는 弘益人間으로 나오지만 원문을 확인하면 弘益之方이 맞다. 민영규는 홍익지방의 홍익의 뜻을 홍익인간의 뜻으로 보았고, 홍익을 삼계교와 연결시켰다.

42) 조홍윤, 「홍익인간 사상의 연원과 의미」, 한국사머니즘학회, 『사머니즘연구』 2(문덕사, 2000), 219-224쪽.

43) 참고로 『漢韓大字典』(민중서림, 1999)의 弘과 益의 사전풀이는 다음과 같다.

弘: ① 활소리 홍(弓聲) ② 넓을 홍, 클 홍 ③ 넓힐 홍

益: ① 더할 익 ② 더해질 익 ③ 이로울 익 ④ 많을 익 ⑤ 이익 ⑥ 더욱 익 ⑦ 익패 익 ⑧ 성(姓) 익

홍익인간의 弘에는 ‘널리’란 의미보다 ‘크다’는 의미가 원뜻에 가까우며 홍익인간의 홍을 ‘널리’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은 (평등문제를 강조했던) 조소앙이라 추정하고 한다(정영훈, 앞의 논문, 2016a). 정영훈은 남광우 편, 『古今漢韓大辭典』(인하대학교출판부, 1999)에는 ‘클 홍’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찾아보니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韓國漢字語辭典』(1993)에도 ‘클 홍’이라 하고 있다. ‘홍’에는 ‘크게’와 ‘널리’란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어느 쪽을 취하든 이 글에서 논하는 ‘인간’의 字意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홍익인간을 ‘인간을 넓히고 이롭게 한다’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홍익이란 말은 불교에서 ‘홍익중생(弘益衆生)’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하국 정제두의 글에 보이고 신라시대 최치원⁴⁵⁾의 글과 고려시대 이규보의 글⁴⁶⁾에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홍익이 딱히 불교적 용어라고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홍익인간의 인간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은 인간세계 혹은 인간세상을 말한다. 물론 인간은 개별 사람을 말하거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풀기도 한다.⁴⁷⁾ 그러나 인간을 사람으로 보는 관점은 적어도 ‘홍익인간’이란 용어가 쓰인 『삼국유사』가 편찬된 13세기—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이전인 고려 초나 삼국시대 때 쓰인 용어일 가능성이 높지만—언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전근대에서는 모두 인간세계, 인간세상이란 의미로 쓰였지 개별 사람이란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물론 홍익인간의 인간을 개별 사람이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등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의미를 축소한 현대적 해석일 경우에만 유용하다. 인간(人間)에서 간(間)자를 뺀 인(人)이 현대적 의미의 사람에 가까운 용어이다.

‘홍익’과 ‘인간’은 모두 유교나 불교 등 두루 쓰이는 용어인데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런데 홍익과 인간을 조합한 ‘홍익인간’은 새로 만들어진 용어이다. 홍익과 인간 2개의 개별적인 용어는 그 사상적 배경을 유교나 불교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홍익인간의 사상적 연원을 고찰하려면 ‘홍익인간’이란 용어가 처음 보이는 단군신화의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단군신화가 재편⁴⁸⁾된 사상적 배경에는 유교나 도교도 들어가 있지만

44) 『震谷集』.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는 것이요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학문을 하여 능히 도를 넓히고 유익하게 함은 대개 그 사람의 학문하는 것이 능히 그 성체(性體)를 넓힘이 있는 까닭이요, 그 성(性)·도(道)가 스스로 능히 그 사람의 기질을 넓혀서 그런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人能弘道, 非道弘人. 此言凡人有所爲學. 而能弘益於道者, 是蓋其人之爲學者. 有以能弘其性體故也. 非其性道自能弘其人之氣質而然也).”

45) 최치원, 『桂苑筆耕集』, 「請節度判官李瓘大夫充副使」. “十二年之弘益. 久而彌芳. 千萬里之追從. 永以爲好.”

46)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律業首座都行 官誥」. “登壇度衆. 付餘膏於幾人. 傳法利生. 霑甘露者累紀. 弘益多矣. 褒優歎然.”

47) 정영훈·강정모, 『홍익인간사상의 인문학과 창조경제 발전모형』(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26쪽, 114쪽.

48) 구전된 신화가 문자로 정착될 때 자연스럽게 당시의 사상이 스며드는데 이때 신화는

주도적 배경은 불교이다.⁴⁹⁾ 불교적 측면에서 홍익인간과 유사한 홍익중생, 이익인간, 자익인간과 같은 용어 등에서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여러 용례를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弘, 饒, 利, 滋+益衆生

- ① 여러 부처님의 자비의 힘으로 중생을 홍익케 하는(弘益衆生) 까닭에⁵⁰⁾
- ②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요익케 하고(饒益衆生) 석가모니불과 다보불탑을 친견하고 예배하고 공양하였으며⁵¹⁾
- ③ 정법을 연설하여 중생을 이익케 하여(利益衆生) 능히 번뇌를 없애고 여러 고뇌를 소멸하게 한다⁵²⁾
- ④ 능히 감로로 중생을 자익케 하고(滋益衆生)⁵³⁾

(나) 利, 滋+益人間 또는 益人間

- ① 두 번째 용은 구름을 일으켜 비를 오게 하여 인간세상을 이익케 하며(利益人間)⁵⁴⁾
- ② 두 번째 용은 구름을 일으켜 비를 오게 하여 인간세상을 자익케 하며(滋益人間)⁵⁵⁾
- ③ 두 번째 용은 구름을 일으켜 비를 오게 하여 인간세상을 익케 하며(益人間)⁵⁶⁾

(다) 요익유정, 이익유정

- ① 4섭법으로 유정을 요익케 하며(饒益有情)⁵⁷⁾

당시 사상에 의한 재편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서는 조현철,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문학과학지성사, 2003) 참조.

49) 조경철, 앞의 논문(2005).

50) 『起信論疏』 卷1. “諸佛世尊以大悲爲力. 弘益衆生故.”(CBETA, T44, no. 1844, p. 203, c24-25). 이 밖에 홍익중생이란 용례는 다음과 같다. 『增壹阿含經』 卷31 〈38 力品〉. “以大悲爲力弘益衆生.”(CBETA, T02, no. 125, p. 717, b24-25), 『修行道地經』 卷1. “以大慈悲弘益衆生.”(CBETA, T15, no. 606, p. 181, c18)

51) 『妙法蓮華經』 卷7 〈24 妙音菩薩品〉. “世尊! 我到娑婆世界饒益衆生, 見釋迦牟尼佛, 及見多寶佛塔, 禮拜, 供養.”(CBETA, T09, no. 262, p. 56, b24-25)

52) 『金光明經』 卷1 〈3 懺悔品〉. “演說正法 利益衆生 能害煩惱 消除諸苦.”(CBETA, T16, no. 663, p. 336, c11-12); 『大般涅槃經』 卷2. “王恒如是廣行布施. 利益衆生不捨晝夜.”(CBETA, T01, no. 7, p. 201, c5-6).

53)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卷3. “能以甘露滋益衆生.”(CBETA, T24, no. 1450, p. 110, a20)

54) 『楞嚴經集註』 卷6. “熏聞云. 龍有四種. 一守天宮殿持令不落. 二興雲致雨利益人間. 三地龍. 泆江開瀆. 四伏藏龍. 守轉輪王及大福人藏. 肇師但出三種不出天龍.”(CBETA, X11, no. 268, p. 461, a3-4 // Z 1:17, p. 151, c3-4 // R17, p. 302, a3-4).

55) 『法華經科註』 卷10. “二興雲致雨滋益人間.”(CBETA, X30, no. 605, p. 836, b18 // Z 1:48, p. 338, c18 // R48, p. 676, a18).

56) 『觀音義疏』 卷2. “二興雲致雨益人間者.”(CBETA, T34, no. 1728, p. 934, c18-19).

57)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卷1 〈1 序品〉. “以四攝法饒益有情.”(CBETA, T08, no. 246, p. 834, c16-17).

② 능히 이와 같은 선교방편으로 유정을 이익케 하며(利益有情)⁵⁸⁾

홍익인간은 앞의 예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홍익중생(弘益衆生), 요익중생(饒益衆生), 이익중생(利益衆生)이나 자익중생(滋益衆生) 혹은 이익인간(利益人間), 자익인간(滋益人間), 익인간(益人間)이나 요익유정(饒益有情), 이익유정(利益有情) 등과 같은 용어의 조합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⁵⁹⁾ 홍익의 비슷한 말로 요익(饒益), 이익(利益), 자익(滋益) 등이 쓰이고 인간과 비슷한 의미로 중생과 유정이 쓰이고 있다.

글자 수를 비교하여 홍익인간과 가장 근접한 용어는 이익인간, 자익인간, 익인간이다. 이익인간이나 자익인간의 이(利)나 자(滋) 대신에 홍(弘)을 넣으면 홍익인간이 된다. 다만 이익인간이나 자익인간의 용례가 7개 경우에 불과하고 그 용례 모두 용이 비를 오게 하여 중생을 어떻게 한다는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경우이다. 또한 그 용례의 초출 시기도 당 이후로 비교적 늦다.

의미상 홍익인간이란 용어와 가장 가까운 건 홍익중생이다. 불교의 홍익중생의 중생이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홍익인간’이란 용례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 홍익중생과 홍익인간을 연결시키는데 주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용례 가운데 이익중생과 이익인간이 있고 자익중생과 자익인간이 있는 것처럼 중생과 인간을 바꾸어 쓴 용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홍익중생의 중생을 인간으로 바꾸어 홍익인간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⁶⁰⁾

58) 『大般若波羅蜜多經401-600卷』卷536 (31 宣化品). “佛告善現:「由此因緣, 甚深般若波羅蜜多攝一切法, 當知菩薩摩訶薩衆住深般若波羅蜜多, 能作如是方便善巧利益有情。」”(CBETA, T07, no. 220, p. 752, c17-19).

59) 참고로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홍익인간에 대한 대표적인 역주서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三品彰英遺撰, 『三國遺事考證』(塙書房, 1975), 300쪽에서는 “ひろく世の人びとのために力を尽かさせようとし”, 이병도 역, 『원문·역주 삼국유사』(수정판)(명문당, 1992), 180쪽에서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재호 역, 『삼국유사』(술, 1997), 66쪽에서는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2)』(2002, 이회문화사), 143쪽에서는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최광식·박대재 역주, 『삼국유사(1)』(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29쪽에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60) 보살의 두 가지 큰 서원은 上求菩提 또는 上弘佛道와 下化衆生 또는 下化有情 또는 下救衆生이다. 위로는 보리(깨달음)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유정)을 교화한다는 말이다. 『조선왕조실록』의 보이는 “下化人間”은 “下化衆生”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여기서도 중생, 유정, 인간이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익중생, 이익유정, 이익인간이나 요익중생, 요익유정, 요익인간의 여러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생, 유정, 인간은 서로 바꾸어 쓰고 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중생은 범어 살타(薩埵, sattva)의 의역(意譯)으로 여러 생을 윤회한다, 여럿이 함께 산다, 많은 연이 화합하여 비로소 생한다는 뜻이 있다.⁶¹⁾ 범어 살타는 보통 중생으로 번역되지만 현장 이후 유정(有情)⁶²⁾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유정은 정(情)이 있는 살아 있는 것을 말하며 산천초목(山川草木) 등 정이 없는 비정(非情)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생은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의 육도를 윤회하는 육도중생이다.⁶³⁾ 6도에서 인간은 인간세계를 말하며, 곧 인간에 태어난다는 말은 인간세계에 태어난다는 말이다.⁶⁴⁾ 인간세계에는 지옥, 아귀, 수라, 축생이 함께한다. 그럼 인간과 인은 어떻게 다른가. 인간세계에 태어난 중생 가운데 하나가 인(사람)이다. 인(사람)은 나중에 업보에 따라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起信論疏』卷1. “上半明爲下化衆生, 下半顯爲上弘佛道. 所以衆生長沒生死之海不趣涅槃之岸者. 只由疑惑邪執故也. 故今下化衆生之要.”(CBETA, T44, no. 1844, p. 204, b5-8).

『般若波羅蜜多心經贊』卷1. “上求菩提下化有情發此智悲故名菩薩.”(CBETA, T33, no. 1711, p. 548, c4).

『華嚴經探玄記』卷10 <2 十地品>. “由上求菩提下救衆生名爲菩薩.”(CBETA, T35, no. 1733, p. 299, b14-15).

『웅제시주』. “古記云 上帝桓因 有庶子曰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率徒三千 降於太白山神檀樹下 世宗實錄地理志 / 平安道/ 평양부(平壤府), 《檀君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 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降太白山神檀樹下.”

61) 운허용하, 『불교사전』(동국역경원, 1995), 808쪽.

62) 『佛光大辭典』【有情】p2441-上>>梵語 sattva, 巴利語 satta. 音譯作薩多婆·薩埵·薩埵·薩埵. 舊譯爲衆生. 卽生存者之意. 關於「有情」與「衆生」二語間之關係, 諸說不一, 或謂「有情」係指人類·諸天·餓鬼·畜生·阿修羅等有情識之生物. 依此, 則草木金石·山河大地等爲非情·無情. 而「衆生」則包括有情及非情二者. 然另一說則認爲「有情」卽是「衆生」之異名, 二者乃體一而名異, 皆包括有情之生物及非情之草木等. 此外, 有情之異稱有「有識」(如有識凡夫)·「有靈」(如有靈之類)等多種. (成唯識論述記卷一本·俱舍論實疏卷一·玄應音義卷二十三)

63) 『妙法蓮華經』卷1 <1 序品>. “諸世界中 六道衆生 生死所趣 善惡業緣 受報好醜 於此悉見.”(CBETA, T09, no. 262, p. 2, c16-18), 『金剛經疏記科會』卷1. “則知三界六道有情無情. 究其所從. 皆因夢識而有.”(CBETA, X25, no. 491, p. 378, a9-10 // Z 1:39, p. 367, d12-13 // R39, p. 734, b12-13).

64) 『妙法蓮華經』卷2 <3 譬喻品>. “又以貪著追求故, 現受衆苦, 後受地獄, 畜生, 餓鬼之苦; 若生天上, 及在人間, 貧窮[1]困苦, 愛別離苦, [2]怨憎會苦, 如是等種種諸苦. 衆生沒在其中, 歡喜遊戲, 不覺不知, 不驚不怖, 亦不生厭, 不求解脫. 於此三界火宅東西馳走, 雖遭大苦, 不以爲患.”(CBETA, T09, no. 262, p. 13, a20-26).

중생은 유정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유정과 비정을 포괄한다. 인(사람)은 유정에 포함되고 더 넓게는 중생에 포함된다. 유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인(사람)이고 중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인(사람)이다. 하지만 중생과 인간은 그 비교대상이 다르다. 중생이 유정과 비정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면 인간은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는 세계 가운데 하나인 공간이다. 그 공간에 인간이 아닌 인(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익중생에서 대상이 아닌 공간을 말하는 홍익인간이란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이익중생과 이익인간’, ‘요익중생과 요익인간’이란 용례가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는 것과 인간세상을 이익되게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인가.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세상인 공간 그 자체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세상의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인간세상의 구성원 모두는 다른 말로 중생이다. 중생과 인간은 대상과 공간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홍익중생과 홍익인간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IV. 홍익인간의 의미

단군신화에 의하면 환웅은 인간세상에 뜻을 두고,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주곡(主穀), 주명(主命), 주병(主病), 주형(主刑), 주선악(主善惡)하면서 인간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성도시 신시(神市)이다. 백성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생명을 관장하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법질서를 세우고, 선악의 윤리를 조정하였다.

이때 곰과 범이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때 환웅은 곰과 범에게 썩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곰과 범이 찾아왔다는 것은 환웅이 다스리는 세계가 인간세계의 인간만이 아니라 곰과 범 등 축생의 세계도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명의 명은 생명 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웅은 공평하

지만은 않았다. 겨울잠을 자는 곰에게는 유리했지만 범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이다. 곰만 인간이 되고 범은 인간이 되지 못했다. 환웅의 입장에서 굳이 둘 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곰만 사람이 되게 했을까?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항상 풍족하고 만족한 곳이 아니다. 사회 불평등은 언제나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평등을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다. 곰처럼 모두가 원하는 걸 획득할 수는 없다. 곰이 사람이 되는 과정은 윤회이다.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윤회를 하게 되는데 축생인 곰은 사람이 되었지만, 범은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달리 생각해보면 인간세상은 인간만으로 유지되는 곳은 아니다. 모든 곰과 범이 사람이 된다면 그곳은 인간세상이 아니다. 사람만으로 구성된 인간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범도 있고 산천초목도 있어야지 바로 인간세상이다. 곰만 사람이 되고 범이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은 인간과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조화의 세계를 상징한다.

하지만 인간세상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다. 홍익중생이 아니고 홍익인간이다. 중생이 6도를 모두 포함하지만 인간세상은 6도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인간세상은 지옥-아귀-축생-수라 및 천과 무관하지 않지만 중심은 인간세상이고 인간세상의 중심은 사람이다. 곰과 범이 그토록 되고자 했던 것도 인간세상의 사람이었다.

논어의 인능홍도 비도홍인(人能弘道 非道弘人)에도 홍도와 홍인이 나온다. '道(人)'를 넓게 하는 것인지, 크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넓게 하면 크게 되고, 크게 하면 넓게 되는 것인지, 넓고 크게 하는 것인지.⁶⁵⁾ 홍은 '크게'라는 성장적 측면과 '널리'라는 평등적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널리'와 '크게'는 '홍익인간'이란 수레를 끄는 두 바퀴 수레다.

홍익인간의 홍익이란 뜻과 더불어 무엇으로 홍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불경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재물과 같은 것으로 중생을 요익할 뿐만 아니라 묘한 선법(善法)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제1의 요익이라 하였다.⁶⁶⁾

65) 한편 정영훈은弘을 '크게'와 '널리' 두 의미로 보면서 '크게'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크게'는 성장=생산성 측면, '널리'는 평등=복지 측면으로 보고 양 측면에 대한 지향성을 홍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 정영훈·강정모, 앞의 논문(2013), 25쪽.

66) 『解深密經』卷4 (7 地波羅蜜多品). “但以財物[4]暫相饒益可令成樂. 唯有安處妙善法

논의의 다양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달라야 한다. 홍익인간을 포함한 단군신화의 전승은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근현대에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군신화는 고대사회의 출발과 관련되어 있다. 신석기시대를 넘어 계급사회로 진전되어 청동기시대로 넘어가는 사회단계에 형성된 단군신화의 홍익인간은 계급 이전의 원시공동체적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공동체적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는 신분질서에 입각한 윤리질서를 앞세웠다.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고 자연은 인간의 주도하에 운영되었다. 인간세상의 인간도 양반 사대부층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인간 일반의 공동이익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홍익인간의 출처가 『삼국유사』이고 불교적 윤색을 띠었기 때문에 성리학 사회에서 널리 퍼지기는 어려웠다. 조선 초 불교적 의미가 강한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중생’ 대신 ‘하화인간(下化人間)’이라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현대에 이르러 홍익인간이 새삼 주목을 받은 계기는 인간의 평등과 관련해서였다. 홍(弘)에는 널리와 크게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인간’이 육도와 함께하는 인간세상의 의미라면 인간과 육도가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널리’에 더 가까우며 이는 평등에 가까운 이해라고 생각된다.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생태로서의 인간관이다. 홍익인간의 유래가 홍익중생이듯이 홍익인간의 인간은 인간세상이며 인간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유정인 동물이나 비정인 산천초목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⁶⁷⁾ 사람이 신분과 계급으로 나뉜 전근대사회를 평등한 근대의 사람관계로 만들기 위해 ‘홍익인간’의 ‘인본주의’ 측면을 강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21세기 4차 혁명시대에 인본주의만으로는 ‘인간세상’을 이끌어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 강조한 바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만이 한민족의 남북통일과⁶⁸⁾ 21세기 인류가 공존하는 길이라고

中. 方可得名第一饒益.”(CBETA, T16, no. 676, p. 706, a24-b3).

67) 김인회는 ‘인간’을 사람과 자연을 망라한 개념인 ‘누리’로 해석하면서, 개국이념으로의 홍익인간은 원래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개념이었지 결코 사람 중심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인데, 교육이념으로 채택될 때 사람 위주의 인간중심주의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였다(김인회, 앞의 논문, 1999, 47쪽). 홍익인간의 ‘인간’을 ‘누리’로 처음 이해한 연구자는 정순목이다(정순목, 「시간관, 삶의 태도, 교육관 연구: 제2부, 신화에 의한 분석」, 『교육학연구』 9권 2호, 1971).

생각한다.

V. 맺음말

인간(人間)은 보통 개별적인 인간(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머물러 사는 세상의 뜻으로 인간세상과 같은 말이다. 단군신화의 인간은 현재적 의미의 인간(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고려시대와 그 이전에는 인간세상이었다. 『삼국사기』에도 인간세상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간인(人間人)’이라고 하였다.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인으로 표기했다. 6도 윤희의 인간은 ‘인간상’을 말하며, 곧 인간에 태어난다는 말은 인간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이다. 인간세계에는 지옥, 아귀, 수라, 축생이 함께한다. 인간과 인은 어떻게 다른가. 인간세계에 태어난 중생 가운데 하나가 인(사람)이다.

홍익인간은 홍익중생(弘益衆生), 요익중생(饒益衆生), 이익중생(利益衆生)이나 자익중생(滋益衆生) 혹은 익인간(益人間), 이익인간(利益人間), 자익인간(滋益人間) 등 불교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익중생이 이익인간과 통하고 자익중생이 자익인간과 통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은 중생의 의미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홍익인간의 해석은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전통적 해석이 가장 무난하다. 널리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태를 포함한 인간세상이 되어야 한다. 1차적인 사회통합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회라면 궁극적인 사회통합은 사람이 사는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다.’

고조선이란 나라 이름은 기자조선 또는 위만조선보다 이전에 있었던 단군조선이란 의미로 조선이란 국호 앞에 ‘고(古)를 붙인 것이다. 그런데 보통 나라 이름이 같은 경우 접두어로 전(前)·후(後)나 동·서·남·북을 붙이는데 ‘고’를 붙인 경우는 고조선이 유일하다. ‘상고(尙古), ‘고전(古典)’의 ‘고’가 이상으로 삼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듯 조선에 ‘고’를 붙인 것도 이상적인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고’를 덧붙인

68)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의 통일한국인상에 홍익인간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권성아, 「21세기 통일한국인상과 홍익인간 교육」, 『교육학연구』 40권 5호(2002).

‘고조선’이란 국호가 『삼국유사』에서 승려 일연이 만든 국호라면 단군이 세운 조선을 이상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연이 생각한 이상국가는 불교의 천신인 제석이 다스리는 국가이고, 제석이 다스리는 통치이념은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桂苑筆耕集』, 『觀音義疏』,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起信論疏』, 『金剛經註解』, 『金光明經』, 『大般若波羅蜜多經401-1600卷』, 『大方廣佛華嚴經』, 『大寶積經』, 『大藏經』, 『東國李相國集』, 『楞嚴經集註』, 『妙法蓮華經』, 『般若波羅蜜多心經贊』, 『法華經科註』, 『屏谷集』, 『佛光辭典』,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高僧傳』, 『修行道地經』, 『應製詩註』,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帝王韻紀』, 『朝鮮王朝實錄』, 『增壹阿含經』, 『出曜經』, 『霞谷集』, 『華嚴經探玄記』.

2. 단행본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2)』. 이회문화사, 2002.
김성환, 『고려시대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2002.
백낙준, 『한국의 현실과 이상 (상)』. 동아출판사, 1963.
신종원 외 엮음, 『일본인들의 단군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윤허용하,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1995.
이병도 역, 『원문·역주 삼국유사』(수정판). 명문당, 1992.
이재호 역, 『삼국유사』. 솔, 1997.
정영훈·강정모, 『홍익인간사상의 인문학과 창조경제 발전모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최광식·박대재 역주, 『삼국유사 (1)』.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三品彰英遺撰, 『三國遺事考證』. 塙書房, 1975.

2. 논문

권성아, 「홍익인간 이념의 교육학적 해석」. 『정신문화연구』 22권 1호, 1999.
_____, 「21세기 통일한국인상과 홍익인간 교육」. 『교육학연구』 40권 5호, 2002.
김두진, 「단군고기의 이해방향」.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김인희, 「21세기 한국교육과 홍익인간교육이념」. 『정신문화연구』 74호, 1999.
민영규, 「용재선생과 홍익인간의 문제」. 『용재백낙준박사기념강연』, 대한기독교서회, 1992.
_____, 「사친강단체 2」. 『사친강단』, 민족사, 1997.
배종빈, 「홍익인간의 역철학적 근거」. 『동서철학연구』 23, 2002.
백낙준, 「사회변혁과 새교육」. 『한국의 현실과 이상 (상)』, 동아출판사, 1963.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윤이흠 외,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초판 1994).

- 이강래, 「삼국유사 인용 고기의 성격」.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1996.
- 이도학, 「단군 국조의식과 의식 경계의 변천: 『구삼국사』와 관련하여」. 『한국사상사학』 40, 2012.
- 임재해, 「단군신화를 보는 생태학적 눈과 자연친화적 홍익인간사상」. 『고조선연구』 9, 2003.
- 정순목, 「시간관, 삶의 태도, 교육관 연구: 제2부, 신화에 의한 분석」. 『교육학연구』 9권 2호, 1971.
- 정영훈, 「홍익인간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조선단군학』 34, 2016a.
- _____, 「홍익인간 사상의 인본주의」. 『민족문화논총』 64, 2016b.
- 조경철, 「단군신화의 불교적 세계관」. 정구복 외, 『삼국유사기이편연구』, 경인문화사, 2005.
- _____, 「근대 이전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인식」. 『한국사상사학』 45, 2014a.
- _____, 「단군신화의 보편적 인간관」. 『한국학논총』 42, 2014b.
- 조법중, 「한국 고대 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 고조선·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 『선사와고대』 23, 2005.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 조홍윤, 「홍익인간 사상의 연원과 의미」. 한국사머니즘학회, 『사머니즘연구』 2, 문덕사, 2000.
- 최문형, 「단군신화의 신 개념과 홍익인간 사상」. 『정신문화연구』 27, 2004.
- 최복홍,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고조선 가락국 건국 신화의 불교 관계 자료 고찰」. 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신화연구』, 백산자료원, 2003.
- 한국고대사연구소 편, 『역주한국고대금석문 3』. 가락국사적연구원, 1995.
- 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주 여말선초금석문(상하)』. 혜안, 1996.

국 문 초 록

인간(人間)은 보통 개별적인 인간(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머물러 사는 세상의 뜻으로 인간세상과 같은 말이다. 단군신화의 인간은 현재적 의미의 인간(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고려시대와 그 이전에는 인간세상이었다. 『삼국사기』에도 인간세상의 사람이라고 할 때 ‘人間人’이라고 하였다.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인으로 표기했다.

홍익인간은 홍익중생(弘益衆生), 요익중생(饒益衆生), 이익중생(利益衆生)이나 자익중생(滋益衆生) 혹은 익인간(益人間), 이익인간(利益人間), 자익인간(滋益人間) 등 불교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익중생이 이익인간과 통하고 자익중생이 자익인간과 통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은 중생의 의미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6도 윤회의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세상’을 말하며, 곧 인간에 태어난다는 말은 인간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이다. 인간세계에는 지옥, 아귀, 수라, 축생이 함께한다. 인간세계에 태어난 중생 가운데 하나가 인(사람)이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다. 인간이 아닌 인간세상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홍’은 ‘널리’라는 의미와 ‘크게’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으므로 현대적 의미로 보면 평등과 분배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세상은 인간세상을 넘어서 지구생태까지 포괄하는 커다란 범주까지 확대될 수 있다.

투고일 2017. 6. 20.

심사일 2017. 7. 4.

게재 확정일 2017. 8. 24.

주제어(keyword) 단군신화(檀君神話, Dangun myth), 인(man), 인간(mankind), 홍익인간(弘益人間, Hongikingan), 홍익중생(弘益衆生, Hongikjungsaeng), 자익인간(滋益人間, Jaickingan), 자익중생(滋益衆生, Jaickjungsaeng)